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기관별 직무 차이

홍은경*, 최정실**

*신성대학교 작업치료과 조교수,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작업치료과 부교수

국문초록

목적 :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를 병원, 센터, 복지관에 따라 중요도, 빈도, 난이도를 분석하여 기관별 직무(과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감각통합치료를 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지는 감각통합치료 중심으로 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분석의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구성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 병원, 센터,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과제의 중요도, 빈도, 난이도에 차이가 있었다. 기관별 중요도는 총 10개 과제에서 차이가 있었고, 빈도는 총 7개 과제, 난이도는 총 2개 과제에서 차이가 있었다.

결론 : 작업치료사는 기관별 직무의 특성이 상이함을 인식하고, 각 기관별로 강조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감각통합치료, 기관, 작업치료사, 직무분석

감각통합은 적응행동을 만들어 내기 위해 뇌에서 감각정보를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신체내부와 신체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감각을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Ayres, 1979; Kimball, 1988). 감각통합의 장애가 있는 아동은 운동수행, 행동, 자아조절,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놀이, 일상생활, 학습의 수행능력이 떨어진다(Ayres, 1979). 감각통합치료는 대상자의 신경학적 요구에 맞추어 조절된 감각입력을 제공하여 신체 움직임에 대한 인식, 운동계획 및 실행을 향상시키는 치료이다(Kim &

Kim, 2007).

국내에서 감각통합치료는 아동작업치료사에 의해 주로 실시되고 있다(Kim, 2015). 국내의 감각통합치료를 사용하는 아동작업치료사는 사설기관, 복지관, 병원 등의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지적장애나 자폐스펙트럼장애와 같은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치료하고 있다(Kim, 2015). 최근 아동작업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직무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각 분야별 직무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 직종간의 차이와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절차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Lee et al., 2015). Lee(2013)의 연구

교신저자: 최정실(noul21@naver.com)

접수일: 2018.08.01.

|| 심사일: (1차: 2018.08.14, / 2차: 2018.09.02.)

|| 게재확정일: 2018.09.03.

에 의하면, 직무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당분야 작업치료사의 직무를 새롭게 정립하고 담당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과 임상실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Lee, 2013). 또한, 감각통합치료세팅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근무기관의 형태에 따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업치료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뚜렷한 정립이 필요하다(Chang, Lee, Jung, & Jung, 2012). 이를 반영하여 Choi와 Hong(2017)은 아동작업치료사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는 감각통합치료분야의 직무를 분석하였다. Choi와 Hong(2017)의 연구에서 직무 정의는 아동·청소년에게 작업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및 놀이를 포함한 작업수행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데 있다. 세부적인 직무를 살펴보면 9개의 책무(duty)(상담, 평가, 치료계획, 치료, 기록, 교육, 자기개발, 관리, 행정), 28개의 과제(task), 169개의 과제요소(task element)로 구성되어 있었다. 9개의 책무 중 중요도 및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치료'이었고 가장 어려운 것은 '치료계획'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아동작업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는 다른 환경인 교육 분야에서도 직무분석이 실시되었으나 약간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수교육현장에서 일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는 기존의 작업치료사의 직무분석(Lee, Chang, Jung, Ku, & Woo, 2014)을 토대로 하여 8개의 책무(치료지원 신청자 정보파악, 치료지원 신청자 평가,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학교작업치료 계획수립, 학교작업치료 지원, 교육 및 관리, 자기개발, 지역사회 연계), 43의 과제, 162개의 과제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Lee, Park, Kim, Noh, Yoon, & Lee, 2015). 그 중 가장 높은 중요도 및 빈도를 보인 것은 '학교작업치료 계획수립' 책무로 나타났다.

선행연구(Choi & Hong, 2017; Lee et al., 2015)에 의하면 관련제도나 제공되는 기관(환경)에 따라 감각통합치료를 제공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에는 차이가 있다. 직무분석은 어떤 직무의 특성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이다(Lee & Noh, 2005). 타분야의 경우, 이미 직종 전체에 대한 직무분석 연구뿐만 아니라 해당 직종 내에서 전문분야별로 직무분석을 시행하여 전문화하고 있는 추세이다(Ku et al., 2013). 예를 들어 간호 직종에서는 병원의 전체 간호수행의 직무분석 이외에 정신과 간호와 같은 세부 직무를 수행하는 정신전문간호사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거나(Cho, 2018) 건강검진센터라는 특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간

호사의 직무분석을 하였다(Kim, 2012).

직무분석이외에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이직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감각통합치료세팅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근무기관의 형태에 따라 직무만족도를 연구한 바 있으나 실제로 임상가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직무만족도가 낮은지는 파악하지는 못하였다(Chang, Lee, Jung, & Jung, 2012). Park(2017) 연구에 의하면, 신규대졸자들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조사 한 첫 직장만족도는 직무일치도와 관련이 있었다. 즉, 해당직무를 수행하기에 개인의 교육수준, 개인의 특정 기술, 대학전공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직장만족도가 달라졌다. 이를 감각통합치료 분야에 적용하면, 감각통합치료를 하고 있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를 파악하여 대학의 교육 또는 직무향상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아동작업치료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관별(병원, 센터, 복지관)로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즉, 기관별로 책무(duty)에 따른 과제(task)의 중요도, 빈도,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감각통합치료를 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122명이었다. 122명은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작업치료사이었다. 작업치료사가 소속되어 일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병원(종합병원, 재활병원)은 27개, 센터(연구소, 센터)는 78개, 복지관 17개 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기술서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소속기관, 아동 작업치료 경력 및 감각통합치료 경력, 학력, 배우치의 시행여부 정보를 수집하였다. 직무기술서는

Choi와 Hong(2017)이 감각통합치료 중심으로 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분석 연구에서 도출한 직무 기술서를 사용하였다. 직무기술서는 9개의 책무(duty)와 28개의 과제(task), 169개의 과제요소(task element)로 이루어져있는데 각 과제요소 별로 중요도(과제요소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초래되는 위해정도의 중요도), 난이도(과제요소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정도), 빈도(과제요소를 수행하는 횟수의 정도)를 점수화하도록 하였다. 중요도는 0점(중요하지 않음)~3점(매우 중요함), 난이도는 0점(매우 쉬움)~3점(매우 어려움), 빈도는 0점(전혀 수행하지 않음)~3점(자주 수행함)으로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연구과정

연구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고, 연구도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을 설명하였고,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서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메일을 통해 실시하였고, 오프라인은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교육 실시 전과 후에 교육 현장에서 직접 설문지를 배부 및 수거하였다. 총 141부의 설문지 중 작업치료사의 소속이 병원, 센터, 복지관 이외의 소속인 것과 작업치료사가 두 개의 기관에 동시에 소속된 것, 설문지 작성이 미비한 것을 제외한 총 122부를 통계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는 SPSS(statistical package or the social

science)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의 빈도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작업치료사가 소속한 기관의 빈도분석시 1위 병원(27개), 2위 센터(78개), 3위 복지관(17개), 4위 학교(10개) 순으로 나타나 3위까지 기관으로 구분하여 직무분석하였다.

기관별(병원, 센터, 복지관) 직무의 차이는 과제(task)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과제는 과제요소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각 과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빈도의 분석 및 비교는 비모수 검정인 Kruskal wallis test로 하였고 기관별(병원과 센터, 센터와 복지관, 병원과 복지관 비교) 세부 차이 분석은 Mann-Whitney 검정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관별로 27개 병원, 78개의 센터, 17개의 복지관에 소속을 둔 작업치료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모든 기관은 여자가 80%이상을 차지하였고 평균연령은 복지관에서 29.28 ± 5.22 세로 가장 많았다. 감각통합치료경력에는 병원(hospital) 소속의 작업치료사가 3.50 ± 4.76 년, 센터(center) 3.26 ± 3.44 년, 복지관(welfare center) 4.65 ± 18.50 년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바우처 시행여부는 병원은 25.9%(7개), 센터는 74.4%(58개), 복지관 및 교육기관은 52.9%(9개)로 나타나 센터의 비율이 높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2)
Unit: N(%)

Variable		Hospital (N=27)	Center (N=78)	Welfare center (N=17)
Gender	Male	5 (18.5)	8 (10.3)	0 (0)
	Female	22 (81.5)	70 (89.7)	17 (100)
Age*		28.15±5.65	27.87±5.30	29.28±5.22
Career of occupational therapy*		4.24±4.89	3.54±3.77	5.29±5.25
Career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y*		3.50±4.76	3.26±3.44	4.65±18.50
Education	Bachelor (3 years)	20 (74.1)	29 (37.2)	6 (35.3)
	Bachelor (4 years)	6 (22.2)	14 (17.9)	9 (52.9)
	Master	0 (0)	31 (39.7)	2 (11.8)
	Doctor	1 (3.7)	4 (5.2)	0 (0)
Voucher	Yes	7 (25.9)	58 (74.4)	9 (52.9)
	No	20 (74.1)	20 (25.6)	8(47.1)

*Year, mean±standard deviation

2. 기관별 과제의 중요도, 빈도, 난이도 비교

병원, 센터, 복지관에 따라 과제(task)의 중요도(importance), 빈도(frequency), 난이도(difficulty)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세 기관에 따라 상담 책무(duty)는 중요도에서 ‘평가결과 상담하기’에 차이가 있었고, 빈도에서 ‘평가결과 상담하기’, ‘치료 후 상담하기’에 차이가 있었다. 평가 책무는 중요도에서 ‘사례회의하기’, 빈도에서는 ‘평가계획하기’에 차이가 있었다. 치료계획 책무는 중요도에서 ‘치료방법정하기’, 난이도에서 ‘목표설정하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기록 책무는 중요도에서 ‘소견서/협력의뢰서 작성하기’, ‘경과기록하기’에서 차이를 보였고 빈도에서 ‘소견서/협력의뢰서 작성하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교육 책무는 난이도에서 ‘대상자교육하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기개발 책무는 중요도의 ‘개별학습하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관리 책무는 ‘청결관리하기’의 빈도에서 차이가 이었다. 행정 책무는 중요도에서 ‘치료일정관리하기’, ‘문서작성 및 관리하기’, ‘바우처관리하기’, 빈도에서 ‘바우처관리하기’에 차이를 보였다. 치료 책무에서는 세 개 기관에 따라 중요도, 빈도, 난이도에 차이가

없었다.

세기관의 중요도, 빈도, 난이도 중 통계학적 차이가 있는 과제를 세부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기관이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평가결과상담하기’의 중요도에서 병원과 복지관(p=.012), 센터와 복지관(p=.023)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치료후상담하기’의 빈도에서 병원과 센터(p=.003), 병원과 복지관(p=.038)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례회의하기’의 중요도에서 병원과 센터(p=.013), 병원과 복지관(p=.032)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목표설정하기’의 난이도에서 병원과 센터(p=.002), 병원과 복지관(p=.036)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치료방법정하기’의 중요도에서 병원과 센터(p=.014), 병원과 복지관(p=.002)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청결관리하기’의 빈도에서 병원과 센터(p=.011), 병원과 복지관(p=.005)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서관리하기’의 중요도에서 병원과 센터(p=.007), 병원과 복지관(p=.038)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바우처관리하기’의 중요도에서 병원과 센터(p=.000), 센터와 복지관(p=.013)사이에서 차이가 있었고 빈도에서 병원과 센터(p=.000), 병원과 복지관(p=.007)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Comparison of tasks among three agencies

Unit: point, average±standard deviation

Duty	Task (Number of task elements)	Variable	Hospital (N=27)	Center (N=78)	Welfare center (N=17)	χ^2 (p)
Consulting	Early consulting (7)	Importance	19.07±2.51	19.53±1.67	20.35±0.93	3.388 (.184)
		Frequency	12.56±4.69	14.08±4.78	12.47±5.16	3.359 (.186)
		Difficulty	10.07±3.52	11.54±4.62	11.47±3.78	2.259 (.323)
	Consult on evaluation results (6)	Importance	16.48±2.03 ^a	16.82±1.67 ^b	17.65±0.99 ^{ab}	6.588 (.037) [*]
		Frequency	10.07±3.85 ^a	12.78±3.67 ^a	12.47±4.64	8.733 (.013) [*]
		Difficulty	12.52±2.50	12.90±3.59	14.18±2.90	2.472 (.290)
	Consult after intervention (6)	Importance	15.67±2.39	16.54±1.76	16.47±2.29	2.799 (.247)
		Frequency	12.30±3.56 ^{ab}	14.64±2.79 ^a	14.65±3.76 ^b	9.426 (.009) [*]
		Difficulty	11.63±3.10	11.55±4.62	12.59±3.26	.851 (.653)
Final consulting (4)	Importance	10.48±1.34	10.45±1.76	10.57±1.61	4.734 (.094)	
	Frequency	5.70±2.87	7.27±2.78	6.47±3.00	5.481 (.065)	
	Difficulty	8.59±2.28	8.19±2.91	8.47±1.88	.301 (.860)	
Evaluation	Plan evaluations (5)	Importance	15.78±3.03	16.62±1.92	17.06±1.39	1.647 (.439)
		Frequency	10.85±4.56	12.60±4.02 ^a	10.29±4.20 ^a	6.356 (.042) [*]
		Difficulty	10.52±3.02	11.68±4.23	11.59±3.69	2.091 (.352)
	Perform the assessments (12)	Importance	32.70±4.37	33.69±3.21	34.59±1.77	1.700 (.427)
		Frequency	20.85±9.04	23.55±8.21	22.29±8.37	1.627 (.443)
		Difficulty	24.04±5.71	25.95±7.10	26.65±5.28	2.251 (.325)
	Meet the case (5)	Importance	12.26±3.10 ^{ab}	13.68±2.32 ^a	14.06±1.82 ^b	7.430 (.024) [*]
		Frequency	6.37±4.54	6.82±4.50	7.00±4.32	.243 (.886)
		Difficulty	10.81±2.98	12.22±2.93	12.18±2.92	6.010 (.050)
Intervention plan	Interpret evaluation results (8)	Importance	21.93±2.88 ^a	22.87±1.97	23.65±0.70 ^a	6.201 (.045) [*]
		Frequency	13.70±6.91	15.18±5.94	14.06±6.44	1.461 (.482)
		Difficulty	17.96±4.09	18.15±4.64	19.47±3.86	1.302 (.522)
	Set the goals (5)	Importance	13.30±2.04	13.65±1.65	14.24±1.09	1.910 (.385)
		Frequency	8.89±4.48	9.55±3.70	8.53±3.81	1.399 (.500)
		Difficulty	9.67±3.03 ^{ab}	11.64±3.02 ^a	11.35±2.32 ^{ab}	10.323 (.006) [*]
	Design the interventions (5)	Importance	12.19±3.04 ^{ab}	13.49±2.43 ^a	14.59±0.80 ^b	11.071 (.004) [*]
		Frequency	9.81±4.45	10.54±4.19	10.76±4.15	.763 (.683)
		Difficulty	10.44±3.09	10.64±3.28	11.00±2.45	.955 (.620)
Perform a session (9)	Importance	23.89±3.26	25.23±2.52	24.65±3.18	3.481 (.175)	
	Frequency	24.00±5.43	24.69±3.56	25.24±4.47	1.831 (.400)	
	Difficulty	15.56±4.12	16.44±6.09	17.29±5.31	1.862 (.394)	
Intervention	Build the rapport (5)	Importance	13.89±1.83	14.46±1.08	14.00±1.97	1.379 (.502)
		Frequency	13.52±2.93	14.12±2.01	13.82±2.63	.690 (.708)
	Ensure physical safety (5)	Difficulty	8.48±3.04	9.69±3.59	9.35±3.46	2.750 (.253)
		Importance	14.19±1.64	14.65±1.07	14.35±1.66	2.251 (.325)
		Frequency	13.93±2.77	14.06±2.23	13.71±2.71	.364 (.834)
		Difficulty	9.07±3.23	10.13±3.92	9.35±2.69	2.690 (.261)

* p<.05, ^{a,b}: The sam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Mann-Whitney test

Table 2. Comparison of tasks among three agencies

(Cont.)

Unit: point, average±standard deviation

Duty	Task (Number of task elements)	Variable	Hospital (N=27)	Center (N=78)	Welfare center (N=17)	χ^2 (p)
Document	Write initial evaluation report (6)	Importance	16.56±2.14	16.85±1.99	17.12±1.22	.738 (.691)
		Frequency	11.59±5.56	11.83±5.08	11.35±5.16	.120 (.942)
		Difficulty	10.70±3.57	11.68±3.84	11.71±3.48	2.213 (.331)
	Write individualized intervention plan (5)	Importance	13.37±2.59	14.15±1.68	13.37±2.59	3.760 (.153)
		Frequency	9.11±4.69	9.51±4.17	9.35±4.08	.200 (.905)
		Difficulty	9.11±2.74	10.49±3.43	10.59±3.16	3.603 (.165)
	Write the opinions and referrals (4)	Importance	9.33±2.88 ^a	10.83±1.92 ^a	9.76±3.36	7.919 (.019)*
		Frequency	4.63±3.79 ^a	6.54±3.50 ^a	4.94±3.09	7.841 (.020)*
		Difficulty	5.89±2.68	6.67±3.54	6.71±2.44	.932 (.627)
Write the progress (5)	Importance	12.56±2.74 ^a	14.05±1.93 ^a	14.00±1.50	10.461 (.005)*	
	Frequency	11.15±3.21	11.41±4.05	12.88±3.08	3.101 (.212)	
	Difficulty	6.89±3.32	8.19±4.55	8.65±3.37	3.039 (.219)	
Education	Educate parents/clinicians (3)	Importance	6.63±2.47	7.60±1.94	7.06±2.56	5.107 (.078)
		Frequency	2.41±2.79	2.96±2.83	3.06±2.56	1.484 (.476)
		Difficulty	6.00±2.60	7.00±2.08 ^a	5.82±2.38 ^a	6.420 (.040)*
	Educate practitioners (6)	Importance	13.93±4.39	14.90±5.21	13.59±6.48	4.376 (.112)
		Frequency	8.07±6.34	5.12±6.27	4.88±5.83	5.447 (.066)
		Difficulty	10.70±5.38	11.87±5.49	10.41±4.95	2.273 (.321)
Self-development	Participate educations (5)	Importance	12.11±3.00	13.08±2.65	13.47±1.77	2.692 (.260)
		Frequency	7.96±3.98	7.09±4.56	8.12±3.52	2.324 (.313)
		Difficulty	6.15±3.01	7.86±4.28	7.41±3.68	4.714 (.095)
	Individual learning (6)	Importance	13.00±3.58 ^a	15.13±3.25 ^a	14.47±4.19	9.220 (.010)*
		Frequency	6.85±3.85	8.05±4.57	7.24±5.02	2.000 (.368)
		Difficulty	11.63±4.31	13.51±4.06	12.59±4.43	4.288 (.117)
Management	Manage tools (4)	Importance	9.30±2.46	10.37±2.27	9.65±2.71	5.366 (.068)
		Frequency	9.19±2.91	8.01±3.29	7.76±3.33	3.125 (.210)
		Difficulty	4.74±2.77	5.56±3.41	4.88±3.30	1.379 (.502)
	Manage cleanliness (5)	Importance	13.22±2.76	14.19±1.69	12.65±3.59	3.850 (.146)
		Frequency	13.30±2.25 ^{ab}	11.15±3.63 ^a	10.65±3.06 ^a	8.715 (.013)*
		Difficulty	6.15±3.34	7.79±4.24	6.76±3.98	3.598 (.165)
Administration	Manage intervention schedules (5)	Importance	11.19±3.00 ^a	13.47±2.31 ^a	12.24±3.03	16.902 (.000)*
		Frequency	9.41±4.77	11.29±3.82	9.59±3.81	4.924 (.085)
		Difficulty	7.11±2.93	7.18±4.29	7.00±3.73	.154 (.926)
	Purchase tools/materials (5)	Importance	10.59±4.38	12.13±1.09	12.12±3.81	4.015 (.134)
		Frequency	6.07±4.80	6.92±4.67	8.53±3.86	3.632 (.163)
		Difficulty	6.85±3.53	7.71±4.63	8.35±3.72	1.268 (.530)
Administration	Manage documents (5)	Importance	8.00±3.53 ^{ab}	9.78±3.15 ^a	9.94±3.01 ^b	7.950 (.019)*
		Frequency	5.33±3.65	5.55±4.15	7.71±3.39	5.164 (.076)
		Difficulty	5.93±2.65	6.53±3.76	5.94±3.23	.659 (.719)
	Manage vouchers (5)	Importance	9.04±5.15 ^a	13.13±3.18 ^{ab}	9.94±5.33 ^b	18.549 (.000)*
		Frequency	2.81±4.57 ^{ab}	8.85±5.29 ^a	7.00±5.26 ^b	21.431 (.000)
		Difficulty	8.70±4.77	9.24±4.40	8.53±4.29	.400 (.819)
Manage the computerized system (5)	Importance	10.30±4.25	11.21±5.07	11.06±4.09	2.149 (.341)	
	Frequency	5.37±4.83	4.73±5.24 ^a	7.53±4.65 ^a	6.452 (.040)*	
	Difficulty	7.33±3.97	8.65±4.90	7.35±4.03	2.784 (.249)	
Manage practice (8)	Importance	16.56±7.26	15.99±8.88	13.59±9.21	1.160 (.560)	
	Frequency	7.63±7.30	5.15±7.51	3.82±5.70	4.730 (.094)	
	Difficulty	12.19±6.08	13.54±7.96	10.59±6.69	3.679 (.159)	
Administrative meeting (5)	Importance	10.70±4.24	11.28±7.93	11.65±3.87	1.387 (.500)	
	Frequency	7.74±5.17	6.27±5.54	8.12±4.92	3.076 (.215)	
		Difficulty	8.00±4.13	8.10±4.66	7.41±4.26	.761 (.683)

* p<.05, ^{a,b}: The sam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Mann-Whitney test

본 연구는 국내의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작업치료사가 근무하는 기관에 따른 직무분석을 하여 기관별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기관의 분류는 국내의 작업치료의 상황과 국내 감각통합치료 실태조사의 결과(Kim, 2015)를 반영하여 센터, 병원, 복지관의 세 범주로 나누어 직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병원은 의사, 간호사, 다양한 직종의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근무하는 기관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는 회당 평균 30분씩 치료하고 하루 평균 9명 이상의 아동을 치료한다(Kim, 2015). 치료의 주 대상자는 뇌성마비를 포함한 뇌병변 아동이 가장 많기 때문에 (Kim, 2015) 감각통합치료가이외에도 다른 치료법을 함께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센터는 발달장애아동을 치료 및 교육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설기관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치료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기관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작업치료사가 가장 많이 소속된 기관이고, 2015년 실시된 국내 감각통합실태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응답자의 46.1%)(Kim, 2015). 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의 재가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직업재활사, 정보화교사, 사무원 등과 함께 근무하는 기관이다. 센터와 복지관은 보통 1-2명의 작업치료사가 있고 1회 50분 치료(응답자 50%)를 실시하며 하루 평균 5명이상에서 7명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한다(Kim, 2015).

병원 소속의 작업치료사가 센터나 복지관에 비하여 자주 수행하는 과제는 '청결관리하기'로 빈도 13.30±2.25점을 보여 센터(11.15±3.63점)나 복지관(10.65±3.06점)에 비해 높았다. 병원은 환자의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접촉하게 되는 직종인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근무하는 기관이므로 감염예방에 교육 및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진다. 특히, 병원감염(hospital acquired, infection)은 병원에서 질병과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병원 소속 작업치료사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Lee, Kim, & Kim, 2017).

센터 소속의 작업치료사가 병원이나 복지관에 비하여 중요도, 빈도,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과제가 많았다. 먼저 센터 소속의 작업치료사가 병원이나 복지관에 비해 중요하게 여기며 수행하는 과제는 '치료계획하기'로 중요도

12.60±4.02점을 보여 복지관(10.29±4.20점)보다 높았고 '소견서/협력의뢰서 작성하기'에서는 10.83±1.92점을 보여 병원(9.33±2.88점)보다 높았으며 '경과기록하기'에서는 14.05±1.93점을 보여 병원(12.56±2.74점)보다 높았다. '개별학습하기'는 15.13±3.25점을 보여 병원(13.00±3.58점)보다 높았고 '치료일정관리하기'는 13.47±2.31점으로 병원(11.19±3.00점)보다 높았으며 '바우처관리하기'는 13.13±3.18점을 보여 병원(9.04±5.15점)이나 복지관(9.94±5.33점)보다 높았다.

센터 소속의 작업치료사가 다른 기관에 비해 자주 수행하는 과제는 '평가결과해석하기'로 빈도 12.78±3.67점으로 병원(10.07±3.85점)이나 복지관(12.47±4.64점)보다 높았고 '소견서/협력의뢰서 작성하기'의 6.54±3.50점을 보여 병원(4.63±3.79점)보다 높았으며 '바우처관리하기'는 8.85±5.29점을 보여 병원(2.81±4.57점)이나 복지관(7.00±5.26점)보다 높았다. 센터 소속의 작업치료사가 다른 기관에 비해 어렵다고 여기는 과제는 '목표설정하기'로 난이도 11.64±3.02점을 보여 병원(9.67±3.03점)이나 복지관(11.35±2.32점)보다 높았고 '대상자교육하기'는 7.00±2.08점을 보여 복지관(5.82±2.38점)보다 높았다.

센터에서 중요도, 빈도,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종합해보면, 외부기관으로 제출용 아동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는 행정적 업무가 센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의 시행여부는 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센터는 '시행한다'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바우처제도 시행을 많이 하는 센터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는 '바우처관리하기'가 병원기관보다 더 중요하고 자주 수행하는 과제로 보인다. 기록이나 행정 책임인 '소견서/협력의뢰서 작성하기', '경과기록하기'에서 높은 중요도나 빈도를 보인 것은 병원이나 복지관에 비하여 소규모인 센터에서 전산화된 시스템 사용이 낮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복지관 소속의 작업치료사가 센터나 병원에 비해 중요하게 여기며 수행하는 과제는 '평가결과상담하기'로 중요도 17.65±0.99점을 보여 병원(16.48±2.03점)이나 센터(16.82±1.67점)보다 높았고 '사례회의하기'는 14.06±1.82점으로 병원(12.26±3.10점)보다 높았으며 '평가결과해석하기'는 23.65±0.70점으로 병원(21.93±2.88점)보다 높았다. '치료방법정하기'는 14.59±0.80점을 보여 병원(12.19±3.04점)이나 센터(13.49±2.43점)보다 높았고 '문서작성 및

관리하기'는 9.94 ± 3.01 점으로 병원(8.00 ± 3.53 점)이나 센터(9.78 ± 3.15 점)보다 높았다. 복지관 소속의 작업치료사가 다른 기관에 비해 자주 수행하는 과제는 '치료후상담하기'로 빈도 14.65 ± 3.76 점으로 병원(12.30 ± 3.56 점)이나 센터(14.64 ± 2.79 점)보다 높았고 '전산화시스템관리하기'는 7.53 ± 4.65 점으로 센터(4.73 ± 5.24 점)보다 높았다. 장애인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업무표준화사업을 통해 2003년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여 각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다(Chang, 2006). 복지관 소속의 작업치료사도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록을 보관하고, 복지관 내 타직종과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분야의 직무분석은 전문간호사별이나 기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ho, 2018; Kim, 2012; Kim et al., 2018).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센터 간호사의 직무분석을 살펴본 결과, 정상임부와 고위험임산부를 분리하지 않은 기존분만실의 간호사에 비해 고위험임산부만 분리하여 집중케어하는 간호사의 과제는 중요도, 빈도, 난이도에서 차이를 보였고 특히 가장 높은 중요도, 빈도, 난이도를 요구한 과제는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로 태아심음확인하기'이었다(Kim et al., 2018). 간호사가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그 직무의 내용이 다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높은 중요도, 빈도, 난이도를 보이는 과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내에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아동작업치료사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 임의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표본오차의 가능성이 있다. 연구 대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계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국내 감각통합치료의 실태조사연구 및 본 연구에 참여한 작업치료사의 소속이 많은 순위를 바탕으로 감각통합을 하는 아동작업치료사가 근무하는 기관을 3개 기관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나 재활원 등의 기관의 직무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작업치료사의 직무는 9개의 책무(상담, 평가, 치료계획, 치료, 기록, 교육, 자기개발, 관리, 행정), 28개의 과제로 병원, 센터, 복지관의 기관에 따라 중요도, 빈도, 난이도에 차이가 있었다. 기관별로 과제의 중요도, 빈도, 난이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센터에서 중요도, 빈도, 난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과제의 수가 병원이나 복지관에 비해 많았다. 기관별로 중요도에서 차이를 보인 과제는 상담의 '평가결과상담하기', 평가의 '사례회의하기', 치료계획의 '평가결과해석하기', '치료방법정하기', 기록의 '소견서/협력의뢰서 작성하기', '경과기록하기', 자기개발의 '개별학습하기', 행정의 '치료일정관리하기', '문서작성 및 관리하기', '바우처관리하기'로 총 10개이었다. 빈도에서 차이를 보인 과제는 상담의 '평가결과 상담하기', '치료 후 상담하기', 평가의 '평가계획하기', 기록의 '소견서/협력의뢰서 작성하기', 관리의 '청결관리하기', 행정의 '바우처관리하기', '전산화시스템관리하기'로 총 7개이었다. 난이도에서 차이를 보인 과제는 치료계획의 '목표설정하기'와 교육의 '대상자교육하기'로 총 2개이었다.

작업치료사는 기관별 직무의 특성과 차이를 인식하고, 각 기관별로 강조되는 직무에 따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작업치료사의 소속 기관의 특성에 맞게 직무와 관련된 교육, 자기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Ayres, A. J. (1979). *Sensory integration and the child*.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Chang, M. Y., Lee, M. H., Jung, H. Y., & Jung, N. H. (2011). Job satisfac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sensory integration treatment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0(1), 33-44.

Chang, S. D. (2006). *A study o the use of information and the computerized settlement of welfare center for disabled persons*. Master's degree,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Cho, B. S. (2018). *Job analysis for role identification*

-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advanced practice nurse in the mental health & welfare act*. Master's degree, Hanyang University, Seoul.
- Choi, J. S., & Hong, E. K. (2017). Job analysis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 in Korea: Focused on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5(2), 1–21. <http://dx.doi.org/10.18064/JKASI.2017.15.2.001>
- Kim, H. J. (2012). *Nurses' job analysis in the health promotion center*.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J., Kim, J. I., Ahn, S. H., Kim, M. H., Kim, Y. M., Cho, K. S., et al. (2018). Job analysis of maternal fetal intensive care unit nurses using DACUM techniqu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4(1), 10–22. <http://dx.doi.org/10.22650/JKCNR.2018.24.1.10>
- Kim, I. S. (2015). A survey on a status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y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3(2), 1–19.
- Kim, J. M., & Kim, K. M. (2007). The review of proprioceptive activities in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1), 1–7.
- Kimball, J. G. (1988). Hypothesis for production of stimulant drug effectiveness utilizing sensory integrative diagnostic methods. *Journal of the American Orthopedic Association*, 88(6), 757–762.
- Ku, I. S., Hong, S. P., Kim, D. J, Hur, T. R., Jung, S. H., Kim, H. H., et al. (2013). Job analysis of occupational therapist engaged in the field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1(4), 107–122. <http://dx.doi.org/10.14519/jksot.2013.21.4.09>
- Lee, D. Y., & Noh, I. D. (2005). *Vocational evaluation*. Seoul: Hakjisa.
- Lee, H. S., Chang, K. Y., Jung, M. Y., & Ku, I. S. (2013). *Second job analysis of occupational therapist*. Seoul: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 Lee, H. S., Chang, K. Y., Jung, M. Y., Ku, I. S., & Woo, H. S. (2014). Job analysis of occupational therapist for 201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2(2), 89–112. <http://dx.doi.org/10.14519/jksot.2014.22.2.07>
- Lee, H. S., Park, S. H., Kim, Y. J., Noh, C. S., Yoon, Y. Y., & Lee, K. M. (2015). Practice analysis among Korean school based occupation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3(4), 17–33. <http://dx.doi.org/10.14519/jksot.2015.23.4.02>
- Lee, S. M., Kim, C. H., & Kim, P. G. (2017). A research on state infection control for medical technician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2), 127–137. <http://dx.doi.org/10.5392/JKCA2017.17.12.127>
- Park, Y. J. (2017). *An analysis on the structural model of college major satisfaction and first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match and intrinsic job value*. Master's degree, Korea University, Seoul.
- Sim, W. H., & Lee, J. Y. (2016). Job analysis of health guide nurse for role identification: Focusing on annual health guidance membership service.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2), 129–136.
- Yong, J. H., Choi, H. S., Jeong, W. M., Lee, J. Y., Park, H. Y., Cho, B. Y., et al. (2011). Job analysis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based on the DACUM metho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9(2), 97–109.

Abstract

Job Analysis Depending on Agency Type of Korean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Focused on Sensory Integration

Hong, Eunkyong^{*}, Ph.D., O.T., Choi, Jeong-Sil^{**},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hinsu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job tasks of Korean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focusing on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provided in hospitals, private centers, welfare centers, and to identify job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ypes of agency.

Methods : A survey was performed for 122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focused on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by utilizing a questionnaire from July to September 2017. The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job description for the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Results : There were differences in tasks' importances, frequencies, and difficulties according to the three type of agency. Differences were showed total 10 tasks in importance, total 7 tasks in frequency, and total 2 tasks in difficulty depending on the agency type.

Conclusion : Occupational therapists need to identify job differences depending on agency type and to develop essential competencies required to perform the job tasks which emphasized at each agency.

Key words : agency, job analysis, occupational therapist, sensory integration treatment